홀로 밝아 뚜렷이 듣는 자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㉑ 무위진인(無位眞人)

"여러분!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아 뚜렷하게 듣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시방을 관통하여 삼계에 자유자재해서 일체 차별된 경계에 들어가도 달리 바뀌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오. 한순간에 법계를 뚫고 들어가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오.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말하고 아귀를 만나면 아귀를 말하며, 어느 곳이든지 가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교화한다오. 그러나 일찍이 한 생각도 떠나본 적이 없소. 가는 곳 어디서나 청정하고 빛이 시방세계를 비추니 만법이 한결 같소이다."

이 장의 법문은 이른바 무위진인(無位眞人)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말들이다. 지금 눈앞에 홀로 밝아 뚜렷이 듣고 있는 자가 바로 무위진인이다. 임제의 법문을 듣고 있는 자, 임제를 보고 있는 자가 오음색신(五陰色身)으로 된 사람이 아닌 무위진인이라는 말이다. 무위진인은 임제가 특별히 내세운 말이다. 〈임제록〉은 무위진인을 설한 법문이다.

임제가 법을 설하면서 대중을 향하여 듣고 있는 것, 곧 마음을 '이 사람'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법신(法身)이다. 이 법신을 다른 장에서는 무위진인이라 했다. 이 무위진인은 찾으면 있는 곳이 없다.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다 차지하여 없는 데가 없다. 〈능엄경〉 '칠처징심장'이야기처럼 몸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몸 밖에도 있지 아니하여 있는 데가 없지만 오온, 십이처 등이 모두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라 하였다. 나고 죽는 생사마저 벗으나 이미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것이다. 이것이 시방을 관통하여 한순간에 법계에 들어가 자유자재하다 하였다. 하지만 횡변시방(橫徧十方)이요 수궁삼제(竪窮三際)인 심체(心體)에서 볼 때는 들어가는 것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는 것이다. 마음이 시방법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교화의 방편상 무위진인이 세간법에 따라 작용을 할 때는 부처의 입장에서 부처를 설하고 조사의 입장에서 조사, 나한의 입장에서 나한, 나아가 아귀의 입장에서 아귀를 설하지만 심체의 광명이 한순간도 이탈함이 없이 어디서든지 청정하여 시방을 비춘다고 하였다.

부처의 근본이 광명으로 표현되는 것은 부처의 본체인 법신 비로자나가 바로 광명이기 때문이다. 비로자나(毘盧遮那 · Vairocana)를 의역으로 바꾸면 광명변조(光明徧照)이다. 〈화엄경〉에서는 주불 비로자나불이 10번을 방광(放光)하는 장면이 나온다. 빛을 놓은 이것이 곧 설법이다. 광명 속에 부처님 세계가 펼쳐지고 보살들이 나타난다. 비로자나불의 국토인 화장세계가 빛의 세계이며 이 빛의 세계 안에 불찰미진수의 세계가 중중무진으로 전개되면서 층층이 향수해(香水海)가 이어지는 장면들이 설해져 있다. 중생을 위한 보살행의 실천의 마음의 빛을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본래 중생의 마음이 지혜의 광명이고 자비의 광명이어서 이를 통해 자리이타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마음을 달에 비유해 설한 법어들도 많이 전해진다. 심월(心月)이라 하여 수행이 높아질수록 더욱 밝다는 것이다.

당나라 때 반산보적(盤山寶積) 선사가 있었다. 마조도일의 제자로 알려진 스님인데 일설에 생몰연대를 720~814로 보기도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전등록〉에 보적의 송구가 전해진다.

心月孤圓 마음 달 둥글게 솟아
光吞萬像 그 빛이 삼라만상을 삼켜버리네
光非照境 빛이 경계를 비추지 않고
境亦非存 경계 또한 있는 것도 아니라
光境俱亡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면
復是何物 이건 또 무슨 물건인가?

부처의 세계나 중생의 세계가 모두 마음의 세계이고 마음의 세계는 바로 빛의 세계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결국 모두 일승으로 돌아간다

〈一乘〉



세상 속 경전읽기

㉑ 삼계화택(三界火宅)

문 밖에서 내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할까? 옛날에 큰 부호가 문 밖에서 열린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집안 사면에 불이 나 활활 타고 있는데, 집안에는 아이들이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다.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매우 급하다. '나는 힘이 세니 옷상자에, 또는 책상자에 아들들을 담아서 들고 나오자' 고 생각해본다. 그러다가 '좁고 유일한 문을 통해 나오다가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아이들에게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어 무섭다는 말을 일러 주고, 지금 빨리 뛰어나오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리라' 고 생각하여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애가 타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랬지만, 어린 자식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서 믿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나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또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동서로 내달리고 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내 이제 방편과 수단으로 자식들로 하여금 이 화재를 면하게 하리라' 고 생각한 아버지는 여러 자식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외쳤다. "양이 끄는 수레[羊車], 사슴이 끄는 수레[鹿車], 소가 끄는 수레[牛車]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와 가져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노라"

자식들은 앞을 다투어 불붙은 집에서 뛰쳐나와 "아버지께서 주신다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대부호는 세 가지 약속한 수레 대신에, 온갖 보배로 장식된 흰 소가 끄는 큰수레[白牛車]를 모두에게 나누어주었다.

이상은 〈묘법연화경〉 제3 비유품에 나오는 삼계화택의 비유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 양거(羊車), 녹거(鹿車), 우거(牛車)는 각각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삼승(三乘)을 말한다. 화택(火宅)에서 무사히 탈출한 아이들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 수레 대신에 붓다께서 주신 수레는 백우거(白牛車)이다. 백우거는 일불승[一佛乘, Skt. eka-buddha-yāna.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말한다.

세 가지 수레 대신에 백우거를 주셨다는 비유의 뜻은, 붓다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기 이전에는 성문 · 연각 · 보살의 삼승(三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였지만 그것은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모두 일승(一乘)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를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 표현하고, 이는 〈법화경〉 28품 가운데 앞 14품의 요지를 드러낸 말이다.

일체 세간의 아버지[四生慈父]인 붓다께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괴함과 고뇌와 근심과 무명과 어둠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으며, 한량없는 지견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였고, 큰 신통력과 큰 지혜력이 있으며, 방편과 지혜의 바라밀다를 갖추어 대자대비에 항상 게으름이 없으며, 항상 선한 일로 일체를 이익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붓다께서는) 썩고 낡은 삼계(三界)의 불타는 집에서 태어나셔서 중생들을,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하고 슬퍼하며 고통하고 고뇌하며 어리석고 어둠에 가린 3독(毒)의 불에서 제도하려고 교화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妙法蓮華經 T0262_.09.0013a16-18〉

〈묘법연화경〉에서 삼계[三界, 중생이 생사왕래(生死往來)하는 욕계 · 색계 · 무색계]가 무엇으로 불타고 있다고 하였는가? "생노병사우비고뇌(生老病死憂悲苦惱)와 삼독의 불[三毒之火]로 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초기 핵심경전의 하나인 〈연소경(燃燒經)〉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연소경〉의 뼈대에 풍부하게 살을 붙인 것이 〈묘법연화경〉의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㊼ 닦음의 길 7

죽음, "無常 無我"

몇 해 전 불교대학에서 '죽음명상' 이라는 과목을 설강한 적이 있다.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목을 도입한 목적은 분명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진지하게 성찰해보자는 의도였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실존을 성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학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죽음' 이라는 단어 자체를 찜찜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죽음명상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생겼다. 교리적으로 무상과 무아를 이해한다고 해도 죽음이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다. 앎과 삶, 이론과 실제 사이에 넓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당시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수행으로 백골관이 있었다. 죽은 시체가 백골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삶이 무상과 무아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수행이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대개 화장을 하지만, 가난해서 장작을 구할 수 없는 천민들은 시체를 그냥 숲속에 버리곤 하였다. 그러면 산속에 사는 동물이나 새들이 시신의 살을 뜯어먹고 인간의 몸은 자연스럽게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것이 무상이고 무아구나!' 라는 깨달음이 다가온다. 머릿속의 앎과 실제적인 삶의 간극이 좁혀지고 합일(合一)되는 체험인 것이다.

그런데 백골관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다. 썩어가는 시체 옆에서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체 썩는 냄새도 참기 힘들고 새나 벌레들이 쪼아대는 모습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일이다. 때로는 구역질도 할 것이다. 한밤중에 시체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캄캄할 때는 무덤 옆을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시체 옆에서 홀로 밤을 지세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무서움에 벌벌 떨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백골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수행이다. 수행자의 눈과 코, 입 등 모든 감각기관은 온통 시체만을 향해있다. 대상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멸(生滅)하는 다이내믹한 과정에 있음을 깨치게 된다. 죽음이란 사대(四大)의 인연이 다 해서(因緣滅)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백골관을 통해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잠자고 있던 수행자의 삶(生)이 깨어나는(覺) 순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태국을 비롯한 남방에서는 지금도 백골관이 실천되고 있다. 혹자의 경험에 의하면, 사찰 안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백골을 걸어두거나 절에서 수행하다 죽은 승려의 시신을 마른 상태의 미라로 보존하여 선방에 놓아둔다고 한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인 셈이다.

이러한 백골관은 몸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는 데 유용한 수행이다.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생한 현실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변하지 않은 실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각이 근원적인 치유법이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부처님 당시처럼 할 수 없더라도 현대인에게 맞는 백골관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